

종이컵·종이빨대와 '표심'



김승호의
시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습니다.”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임상준 차관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환경부의 발표로 당초 오는 24일부터 예정됐던 음식점 및 카페에서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는 아예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앞으로 음식점에선 손님들에게 종이컵을, 카페에선 종이빨대가 아닌 플라스틱빨대 등을 제공해도 불만이 아니다. 과태료도 없고 단속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빨대의 대체품인 종이빨대, 생분해성빨대 등의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화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4년 전부터 예고했던 정부 정책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현장은 양쪽으로 갈렸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내고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공연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등의 단체는 관련 제도 시행을 재검토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 터였다.

정부가 이번에 내용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론자들은 반대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시행 예고에 맞춰 플라스틱빨대 대신 종이빨대 등을 이미 들여놓고 준비를 하던 프랜차이즈나 소상공인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정부의 기존 친환경 정책에 따라 관련 사업에 발을 들여놓았던 스타트업 등도 복병을 만났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언론에 쓴 기고문에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쓰레기를 줄

이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규제가 뒷받침 안 된 자발적 참여는 공허하다”며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려 싸우는 곳이다. 국민 환심을 사는 정치,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실제 종이컵, 종이빨대를 놓고 벌어진 이번 정책 번복 사태를 놓고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제품과 직접적 연관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리고보니 이에 앞서 연출된 또다른 풍경이 오버랩된다.

지난 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역으로선 처음 참석한 일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한 환경부의 결정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한번 지켜볼 일이다. /bad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0일 (음 10월 8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작은 것을 아끼려고 큰 것을 포기한다. 48년생 형제의 의가 좋아야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발생. 60년생 즐거움에 도취하다 차량 조심. 72년생 신용을 지켜 내일을 얻어라. 84년생 남에게 받은 은덕을 나도 베풀어야.

소 37년생 투자의 진로변경은 신중하게. 49년생 주변을 얻지 못해 외롭다. 61년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긴축재정이 필요. 73년생 결심이 흐지부지되니 일찍 일어나서 빨리 움직여라. 85년생 세월 앞에서 몰라설 곳이 없다.

호랑이 38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50년생 좀 부족하나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62년생 이미 시작한 일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74년생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다. 86년생 부부가 한평생 화합해야 가정의 발전이 있다.

토끼 39년생 평생 내가 가진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준다. 51년생 파곤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 63년생 이익만을 보고 달리면 결국 손해. 75년생 한 곳 차이가 하늘이 무너질 것같이 아쉽다. 87년생 정확하여야 하는 일에 실수가 없다.

말 40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52년생 꾸르는 들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64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주변부터 실패라. 76년생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88년생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뱀 41년생 밤이 자났으니 곧 밝은 새벽이 올 것. 53년생 좋은 결과는 시작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65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 77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리기도 두드리고 건너라. 89년생 여전히 백미처럼 뛰어나라.

말 42년생 재산을 마음은 별이라도 딸 듯이 주고 싶으나 계산하고 가자. 54년생 오후 차량 접촉사고 조심. 66년생 바람이 그칠 생각이 없다. 78년생 늘 대기만성(大器晩成)을 기억. 90년생 생각한 일들이 꼭꼭 맞는데 부모님 교육 덕이다.

양 43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파도처럼 지워진다. 55년생 마음을 정갈히 하고 원하는 바를 명상으로. 67년생 뚫다뻐 가듯이 하루가 순조롭다. 79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나 보관하라. 91년생 할 일 없이 실업자 신세.

원숭이 44년생 현재를 파악해야 남은 내 갈 길이 보인다. 56년생 타이밍이 중요하니 뜸 들이지 않는 빠른 결정이 필요. 68년생 물이 들어오니 힘껏 노를 저어라. 80년생 이사계 약서는 주인을 확인하고 할 것. 92년생 돈에 관심이 없다면 늦게 후회.

닭 45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57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을 지켜준다. 69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라 했는데. 81년생 승진이 어려워도 내일을 응원하자. 93년생 대낮에 꿈을 꾸니 망상이러라.

개 46년생 명예가 높아지고 축하도 받는 날이다. 58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에도 나가보자. 70년생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화는 기본이다. 82년생 앞날이 창창하니 힘내도록. 94년생 작은 내 것에 욕심내다 손실을 보니 마음도 차분하다.

돼지 47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올리지 마라. 59년생 주식투자손실로 나뭇가지가 늘어지듯 한숨만. 71년생 돌아보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83년생 지나친 교만은 혼자 고독하다. 95년생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다면 공부로 실력을.

김상회의四季 역사에서 배우기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탄생시킨 우리나라 부동산은 하락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도 급락이라는 흑역사가 있다. 눈에 띄이는 급락은 네 번 정도인데 그중 하나가 1990년대 초반이다. 1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하고 입주를 시작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가 부동산 급락을 불렀다. IMF라고 부르는 외환위기가 몰아닥쳤을 때 집값은 말 그대로 폭락했다. 연이은 기업 부도와 대량실업으로 가계소득이 뚝 떨어지면서 부동산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원인이었다. 급한 지경에 처한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가 이어졌다. 2기 신도시 입주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2010년 전후에는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입주로 공급이 늘면서 하락세를 탔다. 부동산 하락이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중요한 점은 하락 뒤에 항상 다시 상승했다는 것이다. 예전의 사례를 공부하고 상승 시기를 점친 사람들은 생각 이상의 큰돈을 벌었다.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말이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남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예전의 상황이 앞으로도 그대로 벌어질 거라고 단정하란 얘긴 아니다. 부동산 투자는 거액이 들어가기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팔자상담을 할 때도 과거에서 배우라는 말을 해줄 때가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데도 계속 위기에 처하는 사람에게에는 특히 그렇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를 자초한다. 살면서 하나의 지혜만 얻어도 사는 게 달라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1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늘어나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에 뒤늦은 대처



김소연의
기시수첩

한 봉지에 5개가 들어있던 핫도그가 4개로 줄어들었고, 김은 10장이 들어있던 것이 9장으로 줄었다. 가격은 올리지 않은 채 대신 식품의 용량을 줄인 것이다.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전략이 눈총을 사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이 전략은 가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식품의 내용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다.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식

품업체가 슈링크플레이션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 지갑을 열지 않고 정부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비용과 재료비 원가도 오를 대로 오른 상황.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오른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하지만, 내놓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정부와 여론의 못매를 맞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이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조금 더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풀무원은 ‘뽕글뽕뽕 핫도그’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였고, 동원F&B는 양반김 중량을 5g에서 4.5g으로 줄였다. 참치 통조림 용량도 100g에서 90g으로 낮췄다.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물적 용량을 줄이는 것은 향후 더 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믿고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중량이 줄었거나

재료의 원산지가 바뀌었을 때 배신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기업 스스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낮추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가격이 올라도 구매 가치가 있는 품목이면 구매하는 게 시장 이치다.

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이 성행하고 있지만, 기업 탓만 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에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용량을 줄였다는 것을 고지해야 하는 법안은 없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그저 방관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정부에게도 책임은 있다.

사례가 늘자 뒤늦게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가이드라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을 선택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tree6834@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4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9	1	8	7	2	6	9
7	8	6	9	9	2	2	8	1
2	1	9	2	8	6	7	8	9
8	6	1	7	2	2	9	2	8
8	2	2	6	1	9	9	7	8
9	9	7	8	2	8	1	2	6
1	9	2	8	7	8	6	9	2
9	2	8	2	6	1	8	9	7
6	7	8	9	2	2	8	1	2

2	9	2	6	9	7	8	1	8
9	1	8	8	2	7	6	9	
8	7	6	8	1	9	2	2	9
9	2	8	9	6	1	9	7	
9	6	9	7	8	2	1	8	2
7	2	1	9	2	8	9	8	6
1	8	7	2	9	6	2	9	8
6	9	2	2	7	8	8	9	1
2	8	9	1	8	9	6	2	7